

민주, “손준성 영장기각, 증거인멸 시간 준 것” 맹공

윤석열 ‘정치공작’ 주장에는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 야 특검 요구 비판 ‘화천대유 국힘 게이트’ 살살이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과 관련, 사법부를 거듭 비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영장 기각과 관련, “검찰의 선거 개입이라는 중대 범죄 의혹을 받는 자에게 대놓고 증거 인멸 시간을 준 것이 아니다. 법원의 기각 결정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또 “손 검사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지만, 지난 한 달간 수사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공수처에도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이어 윤 전 총장을 겨냥해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여당의 정치공작이라는 근거 없는 프레임 씌우기에 나섰다. 이는 적반하장”이라며 “정치공작은 대체 누가 했느냐. 유제이탈 화법이 참으로 뻔뻔스럽다”고 맹비난했다. 박주민 의원도 정책조정회의에서 “손준성의 범

죄 혐의는 부인할 수 없다”며 “(윤 전 총장은) 정치공세라고 폄하하지 말고 국민들 앞에 해명·사과하고 후보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의 연루 의혹을 거듭 제기하고 있다. 앞서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윤 전 총장의 ‘정치공작’ 주장에 대해 “뻔뻔함이 올림픽 금메달 수준”이라며 “영장이 기각됐다고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게 아니다. 그걸 모를 리 없는 윤 전 총장이 정치공작 운운하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법원이 정치적 결정을 한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죄의 엄중함에 비해 너무 가벼운 결정이었

다.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여당은 검찰이 무소속 광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 계좌를 동결한 점을 전면에 내세우며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공격했다. 당 화천대유-토건비리 TF 단장인 김병욱 의원은 TF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결탁한 거대한 부패 카르텔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분명해진 것은 이재명은 공의 설계자고 광상도는 비리 설계자라는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자신들의 검은 커넥션을 감추기 위해 꼭 의원의 비위 행위를 미리 알고도 숨겨주고 꼬리 자르기로 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자금 흐름에 대한 신속한 수사

가 진행돼 ‘화천대유 국힘 게이트’의 진실이 살살이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야당의 특검 요구도 거듭 비판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그동안 국감에서 대장동 공세에 실패하면서 이제는 특검 주장으로 모든 이슈를 덮으려고 한다”며 “이 때문에 예산안 처리 일정도 확정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비판했다. 우원식 의원은 TBS 라디오에서 “조사하면 할수록 국민의힘 쪽으로 가게 돼 있는데 특검을 주장하는 건 조사를 제대로 하지 말자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오른쪽두번째)이 28일 국정원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국정감사에 출석, 감사준비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선원 기조실장, 윤형중 1차장, 박지원 국정원장, 박정현 2차장. /연합뉴스

국정원 “김정은 대역설 근거없어... ‘김정은주의’ 용어 사용

국회 정보위 국감서 밝혀 “20kg 감량, 건강 이상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체중을 140kg에서 20kg가량 감량했으며, 건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국가정보원이 28일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정원 국정감사 도중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이 일부에서 제기된 김정은 대역설(諛)은 근거 없고,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보고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국정원은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과학적 기법을 통해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세밀하게 추적해 왔으며, 얼굴 피부 트러블 여부를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의 초해상도 영상을 동원했다고 두 간사는 설

명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올해 들어 70일간 공개 활동을 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5% 증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당 회의장 배정에서 김일성-김정일 부자 사진을 없애고, 내부적으로 ‘김정은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독자적 사상 체제 정립도 시작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김 위원장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5월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데 대해 “위상에 걸맞은 공식 직책이 부여된 것”이라며 “외교·안보 총괄을 맡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부장의 올해 공개 활동은 총 34회로, 작년의 17회와 비교해 급증했으며, 대남·대미 활동을 관장하는 동시에 비공개 지방 방문을 통해 민생 동향을 파악해 김 위원장에게 보고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감에서 북한의 경제난에 대해서도 상세히 보고했다. 하 의원은 “올해 북중 무

역액이 9월까지 1억8500여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9월 교역량도 2019년 동기 대비 29%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그는 “경제 관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북한 중앙은행이 용지와 특수 잉크 수입 중단으로 화폐 인쇄에까지 애를 먹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특히 필수 약품 품귀 현상도 벌어지고 있어 장티푸스 등 수인성 전염병이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 국정원의 보고 내용이다. 이에 북한은 대외 교역 확대를 시도하며, 경제 송금 트이기를 모색하는 중으로, 지난 7월 이후 선박편을 통한 인도 물자 반입을 확대하고, 8월부터는 의료 방역 물자 반입도 일부 허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이 ‘살얼음을 걷는 심정이고, 나라 한 톨까지 확보하라’는 지시를 하면서 ‘밥 먹는 사람은 모두 농촌 지원에 나서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일부러 흘리나 실제있나...국힘, 후보단일화설 ‘술술’

각 캠프, 강력 부인 속 지라시 돌아 일부 캠프 “접촉은 있지만 진전없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의 막판 변수로 후보단일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강 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각각 원희룡 전 제주지사, 유승민 전 의원에 ‘몰릴 러브콜’을 보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서다. 한때 ‘홍준표·유승민 단일화’ 시나리오를 담은 출처 불명의 정보지(지라시)가 돌기도 했다. 일단 각 캠프는 단일화 가능성을 강력히 부정했다. 윤 전 총장 측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단일화는 윤석열식 정치와 맞지 않는다. 전혀 머릿속에 없다”고 했다. 원 전 지사 측 관계자도 “단일화는 전혀 없다고 단언한다. ‘원희룡’ (원희룡 쪽으면 원희룡이 된다)이다”고 말했다. 홍 의원 역시 통화에서 “단일화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논의한 일도 없고 협의한 일도 없다”고 했다. 이날 기자들과 만나서도 “지라시를 언급하고 가부를 답하는 것 자체가 지라시 정치”라고 일축했다. /연합뉴스

유 전 의원 측은 ‘홍준표·유승민 단일화’ 관련 지라시에 대해 “악의적 마타도어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출처를 반드시 찾아내 엄벌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캠프 내부적으로는 해당 글 작성·유포자에 대한 수사 의뢰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들 간 캐릭터가 워낙 뚜렷해 단일화가 성사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정치신인 격인 윤 전 총장을 제쳐두더라도, 홍 의원, 유 전 의원, 원 전 지사 모두 20여년 간 보수정당의 한솔 밥을 먹었지만 각자 철학과 이력이 사뭇 다르다는 것이다. 정책 역량이 강점으로 꼽히는 유 전 의원과 원 전 지사가 막판 역전극을 이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본경선 마지막까지 단일화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시각이 많다. 당원들의 표심도 3·4위로 기울기보다는 ‘이기는 쪽으로 승부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 본경선에서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1위를 기대하기 어려운 주자들로서는 단일화로 향후 정치적 공간을 확보하는 게 실리적이란 것이다. 실제로 특정 캠프에서는 단일화 물밑 접촉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캠프 관계자는 “접촉이 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 이상의 진전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호남 직능인 2520명, 윤석열 지지 선언

호남 직능인 2520명이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를 선언했다. 의료, 법조, 문화예술, 중소기업, 자영업 등 종사자들은 28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의힘 경선, 대선 승리를 통해 정권교체를 이뤄 국민 안전과 평화를 위해 헌신할 유일한 후보는 윤석열 후보”라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는 ‘내로남불’ 정치를 타파하고, 자기 식구만 감싸는 진영 정치를 극복하고, 공정

·상식·양심·소신을 지닌 지도자를 원한다”며 “그런 지도자가 윤석열 후보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전원주택 개발부지

담양읍, 다가구, 사옥등 다용도 부지, 임야, 매매

- 1 전원주택 개발부지 건물 후면 선산 명지**
담양, 금성, 덕성리 덕진산 아래 광주간 20분 4차선 신설도로 근접
·2층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적벽돌외벽 스톤외벽 129㎡(39평)
·토지 8,098㎡(2,452평) 50여년생 명품소나무 8주와 정원수 및 과수 380여주 포함
·경관 수려한 숲속 전원주택 100여조 조성 가능
·2층 기존 건물 후면 선산 명지 조성 가능 매 7억원
- 2 전원주택용 부지와 식재된 조경수 20여년생 8중 1천5백주 포함**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신설 4차선 I.C 근접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전 9,190㎡(2,780평)
·느티나무, 소나무 등 20여년생 외 7중 1천5백여주 조경수 포함
·전원주택단지, 물치장, 펜션 다목적 사용부지
·구내포장 배수로 시설 남향에 아미산 바라본 경관수려 ㎡ 8만원
- 3 다가구, 고급주택, 사옥 등 다용도 부지(주거 2중)**
·담양읍 양각리 강변 유희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 15분 공용주차장 3면도로점 남향 교통요지 시장인접
다가구 사옥 다용도 부지 4,220㎡(1,276평) 매 ㎡ 6심5만원
- 4 임야내 휴양림 30여년생 편백 1만여주 식재 마을 변방**
(1) 영암읍 함곡리 계획관리지역, 취락마을 용지 포함. 현 국도 4차선 근접 2023년 고속도로 완공시 톨게이트 300m 지점
광주간 25분 소요, 임야 76,000㎡(22,990평) 구내달달생
전원주택지 귀농·귀촌·휴양지 적합 매 ㎡ 6천원
(2)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임야 62,810㎡(19,000평)
농림지역 농로접 적용다수자생 생약재배 캠핑장, 휴양지
농기주택 가능 매 ㎡ 5천원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61-5(삼성유희플러스길 건너편 동광주빌딩)
대영공인중개사 대표 김용주 010-3454-2389

발목펌프

특허받은 표준형



발목펌프는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의 각종 성인병을 완전 해결시켜줍니다. 직경 10cm, 길이 30cm, 높이 70cm 편백나무 반원에 운동하는데 층간소음이 지장이 없는 운동효과가 확실한 특허 표준형입니다.

- ★특허등록 제30-0630153 발목운동기구
- ★특허등록 제30-0636197 발목운동기구

표준형 발목펌프+타이머 가격 40,000원
표준형 발목펌프 가격 25,000원
편백경침 스폰지 부착 가격 13,000원

제일건강 010-7510-2000
광주 남구 서문대로 687 수협 2층